

祝 辭

택성 탄허 큰스님의 탄신 일백 주년을 맞아 문도의 정성으로 탄허스님의 스승인 ‘중원 한암스님’과 ‘택성 탄허스님’의 간찰집을 발간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 간찰집을 통해 산중은 물론 많은 사부대중이 부처님의 삶을 다시 되새기고, 두 스님의 진면목을 오롯이 가슴에 새기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한암 대종사께서는 항상 종도들의 존경속에 계시는 우리 종단 초대 종정이셨습니다. “도 닦는 마음을 견고히 하여 반드시 견성할지어다”란 중봉 선사의 법어를 지침으로 추상같이 수행을 하였고, 화두참구와 염불, 간경, 의식, 그리고 가람수호를 수행자의 본분으로 삼아 반드시 지켜져야 할 ‘승가오칙’으로 정하셨습니다. 더불어 수승한 학식과 인품으로 출가사문의 방향을 올바르게 잡아주셨고 전통법맥을 이어 선풍을 중흥시킨 진정한 우리 시대의 사표이셨습니다.

한국불교의 대표적인 학승이자 선승이신 탄허스님은 유불도 삼교에 능통한 대석학이였으며 수행인으로는 처음으로 은관문화훈장을 받기도 하셨습니다. 오대산수련원을 개원하여 출가와 재가를 구분하지 않고 인재양성과 역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진력을 다하신 스님은, 화엄경을 비롯하여 불교경전을 알기 쉽게 한글로 번역하는데 앞장서 ‘불경의 한글화’라는 큰 족적을 남기셨습니다. 이러한 스님의 공적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널리 퍼질 수 있도록 후학들은 정진에 여념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지난해 문도들께서 큰스님의 탄신 일백 주년을 기념하는 학술대회와 스님의 글을 모아서 서울국립중앙박물관, 국립전주박물관, 월정사박물관 국립춘천박물관에서 순회전을 개최하여 두 분 대종사의 사상을 널리 현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 올해는 큰스님의 면목이 알알이 담겨 있는 간찰집을 간행하여 뜻을 기리고 있기에 문도들의 정성스러운 마음은 커다란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간찰집 발행을 거듭 축하하며, 스님의 원력과 덕화가 길이길이 전해져 사부대중에게 귀감이 되고 한국불교 발전에 튼실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불기2558(2014)년 1월 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